

## 2022 년 제 1 회 카리스마 리바이벌이 지향하는 고백(Confession)과 서약(Covenant)

### 모임에 앞선 회개와 고백

오랫동안 지속되는 연합감리교단의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교세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존재성을 잊고, 직면한 교단의 현실에 한인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주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18 세기 산업혁명 당시,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귀족화된 교회의 현실과 혼탁한 세상을 개혁하여, '성서적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존 웨슬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영국과 미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웨슬리를 쓰셨고, 이는 훗날 조선 땅에 감리교 운동(Methodist Movement)을 전파한 아펜젤러 선교사로 이어졌으며, 그 선교의 씨앗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 오늘날의 미연합감리교회 내의 한인교회들의 부흥과 한인 목회자들의 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 장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6-27)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말씀 앞에 언급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라는 말씀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단과 교회의 어려움에 관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강건히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부르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에서 웨슬리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잃고, 종교의 형태만 지닌 채 죽어버린 종파로 남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교리, 정신, 훈련을 붙잡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외친 웨슬리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 모습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길은 초대교회에 역사했고, 웨슬리의 목회에도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어두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생수 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모인 우리는 웨슬리가 사모했던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 즉 '자신의 죄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았던' 100 명의 목회자가 되어,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자 기도합니다.

### **'카리스마 리바이벌'은 다음을 지향합니다**

첫째. 성령의 과거적 역사를 넘은 **현재적 카리스마 체험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웨슬리가 말한 "기독교 교회 내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실제 이유는 은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둔해져...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A.M., ed. Nehemiah Curnock, 8 vols. (London: Robert Cullery),. 2:201-204.)에 동의합니다.

그가 제시한 것처럼 지금도 복음이 권능으로 전파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있다면, 성령은 치유, 예언, 기적, 귀신 쫓음 등을 동반한 비상한 카리스마타(extraordinary charismata)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Here & Now)' 여전히 힘있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성서에 나타난 다양한 카리스마의 역사를 인정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지향합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에 관용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를 거듭하며, 현상과 표적에만 치중하고, 은혜의 수단(교회 출석,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일들)을 무시하는 열광주의를 경계하는 한편, 입신을 중심으로 한 정적주의(Quietism)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사랑의 은사를 힘써 구할 것을 강조하면서, 생기 없고 냉랭한 형식주의적 신앙은 비판하고, 지나친 영적 열광주의자들은 경계했습니다.

우리도 웨슬리처럼 영적 분별을 통한 균형 잡힌 카리스마 영성을 견지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성서에 근거한 건강한 영성을 지향합니다.**

웨슬리는 "나는 모든 일에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서를 따른다. 성서야말로 모든 계시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이 짐작한 계시인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율법에 호소하든 또는 체험에 호소하든 지 간에, 모든 영(spirit)을 성서에 근거하여 시험해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주도적이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과 동시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둔 영성을 지향합니다.

넷째,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서로 돕는 **상생 목회를 지향합니다.**

감리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은 연대(Cooperation)와 연합(Connectionalism)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외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엡 4:3-4)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라는 제도적인 구조 속에 소속으로 인한 하나 됨이 아닌, 참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연대하고 상생하는 목회공동체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함께 드리는 서약**

글로벌 웨슬리 영성 목회 네트워크는 카리스마 리바이벌이 지향하는 목회가 확대되고, 더 넓게 공유되도록 가교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웨슬리언 영성목회가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2022 년 2 월 21(월) - 24(목)

뉴욕에서 모인 카리스마 리바이벌 참가자 일동